

1920-30년대 소비에트 체제의 관리에 관한 논쟁¹⁾

권 세 은

경희대학교 러시아어학과

< 목 차 >

I. 서론	VI. 관리와 자기조직화의 상관관계
II. 소비에트 관리와 전시공산주의	VII. 결론
III. 자기조직화와 신경제정책	참고문헌
IV. 산업화와 집단화로의 관리체계 변화	Abstract
V. 국가 관리에 대한 논쟁	

Key words(중심용어): 관리(Management),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 전시공산주의(War Communism),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 계획경제(Planned Economy)

국 문 요 약

이 논문의 목적은 1920-30년대 소련에서 진행된 국가 관리에 관한 논쟁과 그 성격을 고찰하는 것이다.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 직후 진행된 이 논쟁은 그것이 일어났던 시간과 장소를 훨씬 넘어서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그 논쟁의 주요 축이었던 새로운 국가 관리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레닌, 스탈린, 보그다노프, 부하린, 가스체프, 프레오브라젠스키 등의 사상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시스템의 안정과 발전을 둘러싸고 형성된 관리 메커니즘과 자기조직화 메커니즘의 상관관계를 고찰하는 것이 이후 소련의 국가성격을 규명하는데 중요하다.

소비에트 국가 관리에 관한 논쟁의 중심은 관리와 자기조직화의 상관관계로 귀결된다. 소비에트 관리의 형성 시기와 전시공산주의시기에 시스템은 극도의 불균형 상태에 놓이게 되고,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관리 메커니즘이 최대한 작동되었다. 이 관리 메커니즘은 사이버네틱스 논리에서처럼 시스템을 정돈하는 메커니즘으로, 항상성 기제로 주로 이해되었다. 이후 신경제정책 시기에서 관리 주체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와 사회적 객체의 자기조직화 경향이 충돌하면서 관리와 자기조직화 간 경향이 상충되었다. 이어 산업화, 집단화 과정에서는 ‘관리’라는 용어는 ‘사회의 과학적인 관리로 보장되는 인민의 복지 증진’으로 해석되면서 자기조직화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초기에, 평형상태로 진입하는 진입로에서 스탈린은 오히려 지령적 관리를 구축, 유지하는데

1) 본 연구는 2007년도 경희대학교 지원에 의한 결과임(KHU-20070754).

몰두하게 되었다. 선례도 없었던 러시아에서 근대화는 ‘대도약’, ‘사회주의’의 길로 수행되었다. 하지만 명령경제는 명령-정치 체제를 요구하게 되고 그것은 함께 등장했다가 함께 몰락하게 되었다.

I.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1920-30년대 소련에서 진행된 국가 관리에 관한 논쟁과 그 성격을 고찰하는 것이다.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 직후 진행된 논쟁은 그것이 일어났던 시간과 장소를 훨씬 넘어서는 성격을 띠고 있다. 역사적으로 근대화 및 산업화 과정 중 많은 국가들에서, 오늘날 여전히 개발도상국에서 그 전략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초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은 기존 사회의 부분적 개혁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 이는 문화, 노동관계, 사회관계 나아가 인간의 본성까지도 전면적으로 개혁하려는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기획이었다. 혁명 후 사회주의 국가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경제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사회주의에서 노동자와 생산수단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특히 농민문화가 지배적인 러시아에서 어떻게 새로운 노동문화를 정착시킬 것인가? 이 모든 문제는 혁명 직후 러시아가 긴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었다. 하지만 인류역사에 사회주의 사회의 조직 모델이나 산업화 모델과 같은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당시 마르크스 사상이나 레닌 사상에서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모델이 유토피아적이고 유티적인 수준으로만 제시되었지, 혁명 후 형성될 사회의 조직에 대한 어떠한 체계적인 이론이나 모델은 제시되지 않았다. 결국 당시 소련에서 모든 학문적 논의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서 사회주의 혁명의 수행, 사회주의 사회의 조직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국가조직의 형성, 생산수단 및 노동의 관계 설정, 새로운 노동문화의 형성 등과 같은 거대 기획이 당시 러시아의 핵심적 과제였다(권세은 2006b, 149).

소련의 국가 성격 및 역사적 의의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한편으로는 소비에트(Совет) 조직이 모종의 노동자 국가 또는 사회주의 사회였다고, 다른 한편으로는 타락한 노동자 국가(degenerated workers' state)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심지어 탈자본주의 사회(post-capitalist society)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소비에트 조직을 민주적 사회주의 및 인류의 진보와 혼돈하여 경제적 민주주의, 인간 해방의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치한 분석 도구를 활용하면서 러시아적 특성을 변수로 소련의 사회주의를 특수한 형태, 심지어는 병적인 형태로 결론내리는 경향도 존재한다.

볼셰비키들 나아가 레닌은 초 중앙집권적 ‘명령경제’를 처음부터 상정하였는가? 스탈린주의에 대한 대안은 있었는가? 니프를 보존할 부하린의 대안은 적절했는가? 후진국의 급속한 발전을 조직하는 합리적 방식은 무엇이었는가?(Alec Nove 1998, 457-462).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한 논의가 소비에트 체제의 성격에 대한 논의의 주된 경향이었는데, 그 핵심은 ‘관리’의 성격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소비에트 체제의 형성과 그 성격을 역사적 특성에서 찾거나 개인적인 요인, 이데올로기적 요인에서 찾을 수는 있다. 어떤 개인적인 요인을 강조한다고 해서 역사적 특성이나 이데

올로기적 특성과 같은 다른 요인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시스템의 형성 메커니즘 및 발전 메커니즘을, 특히 새로운 조직이 형성될 때의 즉 초기조건에서의 여러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제정 러시아라는 구질서가 붕괴되고 소비에트라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비평형체제로 전환되었다. 이 체제에서는 비선형성(nonlinearity)과 편차증폭순환고리(nonlinear feedback loops)과정이 융합되면서 초기조건에 미세한 차이가 체제에 더욱 더 큰 혼돈적 행태를 보이게 된다(초기조건에의 민감한 의존성; sensitive dependence on initial conditions). 이 시기에는 시스템의 미세한 흔들림이 거시적 변동을 지배한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이 평형상태에 있을 때 미시적 요동이 거시적 변화에 미미한 부분을 좌우하지만 비평형 상태에서 미시적 요동이 전체의 변동을 초래하게 된다(권세은 2002, 27). 이런 논리에 의하면 소비에트 정권 수립 후 전시 공산주의, 신경제정책, 집단화 정책과 같은 일련의 새로운 질서의 형성과정이 70여년 소련 전체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새로운 질서(소비에트) 형성의 초기 논쟁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향후 새로운 질서의 성격, 나아가 소련의 국가 성격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라고 간주한다. 그 논쟁의 주요 축이었던 새로운 국가관리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레닌(В.И. Ленин), 스탈린(И.В. Сталин), 보그다노프(А. А. Богданов), 부하린(Н.И. Бухарин), 가스체프(А.К. Гастев), 프레오브라젠스키(Е.А. Преображенский) 등의 사상을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стабильность), 발전(развитие)을 둘러싸고 형성된 관리(управление)²⁾메커니즘과 자기조직화(самоорганизация)메커니즘의 상관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사실 모든 시스템은 이 두 가지의 상반되는 메커니즘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

II. 소비에트 관리와 전시공산주의(Военный Коммунизм)

역사적으로 체제의 개혁이나 정부의 교체 과정에서 경제운영원칙에는 큰 변화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생산수단의 소유 관계는 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지된다. 하지만 1917년 10월 혁명 후 러시아의 상황은 기존의 체제 변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전개되었다. 사회주의 혁명 후 이른 시기에 ‘토지’에 관한 포고령, ‘노동자 통제’에 관한 포고령이 선포되었다. 토지에 관한 포고령은 토지이용 권리가 농민에게 귀속된다는 점, 노동자의 고용을 금지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 보유지의 국유화 여부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노동자 통제 포고령에 따라 임시정부 하에서부터 이미 존재하던 공장위원회가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게 되어 생산 및 분배 모든 부분을 관리하게 되었다.

이런 경제운영원칙의 변화로 많은 기업은 사회적 소유로의 전환되었는데, 이는 결국 정부에게

2) 러시아어에서 ‘управление’라는 용어는 ‘management’와 ‘governance’의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그 의미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즉 그 운영을 담당하는 인민의위원회(Совет Народных Комиссаров(СНК)) 수중에 떨어지게 되었다. 새로운 대규모 또는 소규모 형태의 관리체계의 모색 과정에서 전 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Все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альный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Комитет(ВЦИК))와 인민의위원회는 노동자 관리³⁾의 도입, 국민경제최고회의(Высший совет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ВСНХ))의 형성⁴⁾, 지방경제 관리 조직⁵⁾ 등과 같은 일련의 원칙에 기초한 다양한 방안을 실현시켰다. 여기서 관리의 핵심 고리는 '계획' 이었다. 이런 계획의 실체화가 러시아電化위원회(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комиссия по электрификации России(ГОЭЛРО))였다.⁶⁾ 그리고 러시아전화위원회에 기초한 전국적 계획의 수립과 그 실행을 관리하기 위해 1921년 2월 국가계획위원회(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общеплановая комиссия(Госплан))⁷⁾가 설립되었다.

레닌은 생산에 대한 조직 및 관리에 대한 학문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학문 및 기술 영역에서의 지식들을 모든 것으로부터 채택하고자 했다. 특히 그는 테일러 시스템의 습득과 교육을 조직하라고 제안했고 러시아 환경에 변용할 것을 제안했다(Ленин 1964, 42, 397). 이런 측면에서 가스체프와 중앙노동연구원(Центрального института труда, ЦИТ)⁸⁾의 학문적, 실천적 업적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앙노동연구소의 주요업무는 생산 공정의 노동 행위 분석에 기초한 노동자의 양성이었다. 가스체프의 사상⁹⁾에서는 근대공장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주의 문화의

-
- 3) 생산, 상업, 은행, 농업, 운송 등 모든 생산조직에 노동자 관리를 도입했다. 노동자 관리는 소속된 전 노동자들이 조직인 공장위원회, 십장위원회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조직에는 사무원 대표 및 기술자 대표들도 포함된다.
 - 4) 이 조직은 전 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와 인민의위원회의 법령에 따라 1917년 12월 15일 설치되었다. 이는 일종의 경제내각이며 인민위원회의 부속기구로서 인민위원회의 대표자, 노동자회의 대표자, 기타 기구 대표자들로 구성되었다. 이 조직의 업무는 국민 경제와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 조직은 국가 경제의 조절, 계획 및 규범을 만들고 중앙과 지방 조절기구들의 업무를 조율했다.
 - 5) 8차 전 러시아 소비에트회의의 '경제관리 지방조직에 관한 결정'에 따라 경제 관리의 지방조직이 형성되었다. 도 집행위원회 산하에 도 경제위원회가 조직되고, 그 조직에서 모든 형태의 경제행위를 조정하게 된다. 모든 수준에서 경제행위의 기본 방향은 레닌의 글 '소비에트 권력의 당면 문제'('Очередные задачи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1918))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그는 정치권력 투쟁 후 관리문제가 중요하고 밝히고 있다. 이 글에서 학문적으로 관리의 객관적 근거와 구체적인 작업을 제시하였다(См.: Директивы КПСС и Совет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хозяйственным вопросам 1957. 5).
 - 6) 여기에 크리취자노프스키(Г.М. Кржижановский)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학자들이 참여했다. 이 위원회는 세계에서 최초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인 러시아 전화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였다. 이 위원회는 러시아 경제를 가장 선진적인 기술에 기초한 경제로, 전기 에너지에 기초한 경제로의 전환을 계획했다.
 - 7) 그 과정은 단일 경제 계획 및 실행 방법의 수립, 다양한 부서의 계획과 전국 생산 프로그램의 심사와 조정, 현안 문제 설정, 국가경제 계획의 실현에 필요한 인력 준비, 국가 경제계획에 대한 지식의 확대 방안 모색 등 이다.
 - 8) 중앙노동연구소는 포드, 테일러, 길버트 등 많은 학자들의 경험을 활용하였다(М.Х. Мексон, М. Альберт и Ф. Хедоури 1993, 62). 중앙노동연구소 첫 프로그램 중 하나가 'Как надо работать'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일을 착수하기 전에 그 일에 대해 완전히 숙고해야 하고, 머릿속에 일의 준비 모델 그리고 모든 노동 방법의 순서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전 노동 도구가 준비될 때까지, 노동을 위하여 전 장치가 준비될 때까지 일에 착수하지 말라 등 노동에 대한 세세한 사항까지 지시하고 있다(А.К. Гастев 1972).
 - 9) 1920년대 관리과학의 한 형태인 소비에트 테일러주의에 대한 내용은 노경덕 논문(2000) 참고.

창출이 핵심적 과제로 제시된다. 그는 혁명 후 과학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보그다노프 사상에 기초하여 테일러주의를 도입하였다. 이런 과학적 사회주의에서 노동관계 및 사회관계가 재조직되고, 집단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를 건설하려 했다. 가스체프는 문화를 통한 노동자 경험의 조직과 집단주의의 창출을 사회주의 혁명의 전제 조건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보그다노프와 일치하지만, 그 문화의 핵심내용을 이데올로기보다는 테크놀로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다르다. 즉 문화를 테크놀로지로 재해석하면서 테크놀로지를 단순히 생산도구로만 여기지 않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지식을 발전시키는 패턴이나 과정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문화는 테크놀로지와 이데올로기가 상호 작용해서 형성되는 하나의 구성체로서 사회적인 집단과정에서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권세은, 2006b 160).

상대적으로 평화적인 경제관계의 개혁은 외국의 간섭과 내전으로 중단되었다.¹⁰⁾ 외국의 간섭과 내전으로 소비에트 정권은 붕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빵, 면화, 석탄, 석유 생산지역과 같은 주요지역들로부터 중앙이 단절되었고, 서구에 의한 봉쇄 결과로 러시아와 국제사회는 단절되었다. 또한 반 소비에트 태업이 증대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비에트 관리는 비상관리체제로 전환되면서 점차 최소한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강제적으로 제거되어 갔다. 그 주요내용은 생산, 분배, 거래 등 생산수단 및 생산물에 대한 국가독점이다. 농산물 징발제(продоразверстка: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ая разверстка)가 도입되고, 생산품의 공급과 배분은 국가에 의해 행해지고, 사영사업은 금지되었다. 게다가 노동력의 동원과 같은 전 국민의 노동의무제가 도입되었다.¹¹⁾ 이제 생산행위에서 인간의 물질적인 흥미의 결여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 그래서 인민위원회의의 칙령 ‘노동의 의무에 대하여(О порядке всеобщей трудовой повинности)’에서처럼 노동자들의 열정에 호소하거나 노동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재판에 회부하였다.

사회주의 혁명 후 러시아에서 최대 현안은 국가를 ‘관리’¹²⁾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관리의 본질은 위에서 아래로의 지령적인 통제와 노동에 대한 경제 외적인 형태의 강제였다. 나아가 생산관계, 문화조차도 새롭게 형성하고 통제하고자 했다. 전시공산주의는 통상 불세비키가 권력을 장악한 후 시작되어 21년 중반까지 진행된 극단적인 단일 병영화시기를 일컫는다. 이 시기의 성격이

10) 러시아에서 왕정이 전복된 후 그 복원을 위해 유럽, 미국, 일본이 개입하였다. 소비에트 러시아에 대항하는 연합군의 두 번째 출정은 ‘14개국의 출정’으로 증가하였다. 극동지역에 일본이, 북쪽에 영국이, 남 러시아에 프랑스가 출정하였다. 황제의 장군과 귀족에 의해 주도된 반동 운동이 외국으로 부터 경제적, 물질적 지원을 받았고, 국내적으로는 소유권이 박탈된 자들, 교회 등의 지원을 받았다.

11) 전시공산주의 경제정책의 핵심적인 요소는 농산물 증발이었다. 붉은 군대와 식량이 부족한 지역에 필요한 최소의 곡물확보를 위하여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수용하는 것이다. 식량 증발량의 결정에서 국가는 농촌의 잉여농산물에서 그 양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최소 수요에서 결정하였다. 부분적으로 식량의 가치는 분배과정에서 공산품으로 보충되었지만 제 가치를 받지 못했다. 그 결과 많은 농민들은 기아에 허덕이게 되었다.

12) 인류의 역사에서 ‘관리’의 문제는 조직(организация)만큼이나 오래됐다. 이런 문제는 오래된 주제들이다. 이집트 피라미드 건설, 로마제국 통치 등은 관리형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역사에서 현대에 운영되는 조직과 같이 운영되던 조직이 존재했다. 이런 명확한 예는 가톨릭교회이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단순한 조직이 성공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오늘날 다른 조직의 구조보다도 훨씬 현대적이다(M.X. Мексон, М. Альберт и Ф. Хедоури 1993, 62).

내전과 간섭전, 경제 붕괴 상황에서 촉발된 일련의 일시적인 즉흥적인 행동에서 발생했는가, 아니면 사회주의로의 진입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인가에 대한 주장은 다양하다. 전시공산주의의 원인을 시대적 상황인 내전으로 보거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비중을 두거나, 아니면 이 두요소의 상호관계에서 찾고 있다.

1917년-21년에 러시아는 엄청난 무정부상태였다. 중앙과 지방의 관리시스템은 붕괴되고 명령 체계도 붕괴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가 없었다. 전쟁과 파괴로 경제는 붕괴되었다.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볼셰비키 사상이 상호작용하여 전시공산주의가 탄생하였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실용적 이유로 취해지는 행동들은 종종 숭고한 원리로 분식되며 정당화되기도 한다. 동시에 레닌을 비롯한 볼셰비키들은 유토피아적이고 비현실적인 관념으로 실제 현안에 접근했고, 그 결과 상황이 더 악화됨으로써 그 후속 조치를 필요하게 만드는 이런 상호작용 관계가 형성되었다(Alec Nove 1998, 51-52). 파국의 요소 그리고 공산주의가 이루어져야 만 한다는 형식적 요소가 전신공산주의를 결정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당시 시대적 상황에 파국적 상황-사회주의 이데올로기-볼셰비키 정책의 상호관계 속에서 전시공산주의는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Ⅲ. 자기조직화와 신경제정책 (нов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политика)

신경제정책 도입은 내전에서 소비에트 정권의 승리 및 외국 간섭군에 점령된 지역의 해방 결과이다.¹³⁾ 1921년 3월 제10차 당 대회에서 신경제정책의 중심 고리인 농산물 징발제도가 현물세(продналог: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й налог, 농민에게 곡물로 징수하는 세금) 제도로 대체되었다.¹⁴⁾ 현물세 납부 후 남은 잉여분은 농민들에게 돌아갔고, 민간 매매의 허용에 따라 그것은 농민들 재량으로 처분되었다. 현물세 도입은 농민들의 흥미를 유발하였고, 그 결과 농업생산물 증대 및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농촌에서 뿐 아니라 공업생산에서도 영향을 미쳐 성장을 위한 힘찬 동인이 되었던 것이다. 동시에 중앙집권화의 약화와 지방경제기관의 강화는 공업생산 부분에도 작용했다. 중앙정부 중추기관(главок)의 지방 지부는 생산부분에서 지방 국민경제회의로 편입되었다.

국가기업은 3그룹으로 나뉘었다. 국민경제최고회의(ВСНХ)의 직접 통치 받는 트러스트화된 국가적으로 주요한 산업, 지방 국민경제회의 통치하의 기업, 지방수준의 기업이다.¹⁵⁾ 국민경제최

13) 내전 및 외국 간섭 전 이후 레닌은 신경제정책을 제안하게 되었다(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1963).

14) 현물세는 전년도 징발 목표 이하로 정해졌으며 양적으로 농산물 징발량보다 적었다. 그래서 1920-21년 농산물 징발량은 4억 2300 푸드(пуд:40 러시아 중량단위, 16.38 킬로그램)였는데, 1920-21년 현물세는 2억 4000만 푸드였다.

15) 6098개 국유화된 기업 중, 2374개 기업이 첫 번째 그룹에 속하고, 3450개의 기업이 2번째 그룹, 1084개의 기업이 3번째에 속했다. 따라서 2/3 정도의 기업이 직접적인 중앙 통제에서 벗어났다(См. И.Б. Берхин 1970, 147-148).

고회의는 1920년대 소련 국영기업의 사령부였다. 이 회의는 1922년 40여개 트러스트의 172개 공장을 관리하고, 258개 공장은 공화국 국민경제회의(COBHAPXO3(CHX))에 종속되어 있었다. 트러스트는 자신들의 공장을 완전히 통제했기 때문에 공장은 독자적인 법인이 아니었다. 트러스트 내 기업 관리자들이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확보하게 된 것은 1927년 이르러서였다.

국민경제최고회의는 전연방적 의의를 갖는 공업의 생산 계획과 예산을 짜고 연방공화국들의 생산 계획과 예산을 검토하여 고스플란의 확인을 거쳐 노동·국방회의(CTO)에 제출하는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 공화국 국민경제회의는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덜한 공업에 대한 권한과 국민경제최고회의의 자문을 받을 권리를 가졌다. 고스플란은 노동·국방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노동·국방회의는 명목상 인민위원회 한 위원회였지만 사실상 경제군사내각으로서 주요 포고령을 발표했다.

국가 기업의 통치에서 구조개선은 상업적인 회계로의 전환을 수반하였다. 채산성 있는 일과 이익 획득을 위해 재정과 물질적 자산의 처리에 있어서 기업의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신경제정책시기 공업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자본주의의 요소의 부흥이었다. 따라서 소기업의 경영과 외국자본의 도입이 허용되었다. 이런 과정은 1921년 8월 9일 인민의원회의 명령에 따라 상당한 수준으로 촉진되었다. 해외 교역의 성장을 위해 해외무역인민위원부에 자신의 대표부를 둘 수 있었다. 이시기에 예외적으로 중요한 것은 소비에트 루블의 안정이었다. 1922년과 1923년 소비에트 지폐의 평가절하가 단행되었다. 국가은행은 금본위 지폐를 발행하게 되었고, 1924년 새로운 경화가 정부발행 불환지폐 형태로 발행되었다. 이렇게 경화는 국제시장에서 신임을 얻게 되면서 국외 경제관계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신경제정책은 합법화된 사적 상거래 및 소규모 사적 제조업에 대부분 사적으로 운영되는 농업이 더해진 일종의 혼합경제였다. 여전히 주요 산업은 국영으로 운영되었다. 이런 일련의 정책들로 경제는 점차 활성화되었다. 상품-화폐 관계가 적극적으로 발전하고, 노동에서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고양되었다. 농촌에서 협동조합은 농산물 생산, 수확, 가공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관리에서 보다 채산성 있는 형태로서 생산조직을 연합하였다. 기업의 트러스트 활동이 강화되고 과학과 기술에 기반을 두면서 공업 생산력이 급격히 증대하였다. 경제 전반에서 나타나는 이런 효과는 공산당이 처음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1921-1925년 시기에 소련의 공업은 생산량 부분에서 1913년 혁명 전 수준을 회복했다.¹⁶⁾ 초기에 당은 후퇴의 정도가 ‘정발’에서 ‘상품교환’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여 상거래의 수준을 통제하고 제한하고자 했지만 현실에서 그 수준은 확대되어 모든 제약을 쓸어버릴 정도였다(Nove Alec 1998, 95).

1921년 ‘10월 혁명 4주년에 부쳐(К четырехлетней годовщине Октябрьской революции II)’에서 레닌은 전시공산주의 경제정책의 오류를 분석하면서 “공산주의로의 전환은 오랜 시간

16) 생산량은 1922-23년에 96백만 루블에서 1924-5년 484백만 루블로 증대되었다. 농업에서 생산량의 성장 속도는 러시아 전 역사에서 가장 높았다. 실제로 소련의 식량 수요가 충족되었고 양곡의 수출이 증대되었다. 농업과 공업의 급속한 증대는 상업을 가능하게 했고, 1922-3년 71개의 거래소의 유통량은 639백만 루블이 되었고, 1924-25년에는 77억 루블로 증대되었다. 무역 부분에서는 현격하게 증대되었다. 수출은 1921년 20,1백만 루블에서 1925년 608,3백만 루블로 증대되고, 수입은 1925년에 826,7백만 루블로 전쟁 전 수준의 66%를 회복했다(См.: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звестия 1971, 205).

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열정이 아닌 혁명의 열정의 도움으로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경영타산에서, 견고한 다리를 그리고 미래를 건설이 필요하다. 다른 방법으로는 공산주의로 갈 수 없다. 다른 방법으로는 수천만 명을 공산주의로 인도할 수 없다. 이런 점을 삶이 우리에게 이야기 하고 있다. 이렇게 혁명의 객관적 길을 이야기 하고 있다”(Ленин 1964(Т.44), 151).

신경제정책시기에서 적지 않은 몇 가지 부정적인 요소도 대두되었다. 첫째, 생산연합 및 협동조합인 트러스트는 당시 경제의 주요 지표인 이익을 쫓아 가격을 급격히 올렸다. 상품의 생산은 줄어들고, 이익은 가격 상승으로 몇 배 증대되었다. 제작자들은 생산성의 효율성을 자랑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제작자들이 과장하여 지표를 발표했다. 이렇게 원자재에서 소비재에 까지 가격의 연결 반응 고리가 형성되었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 급격한 계급 분화가 발생하였다. 오늘날 러시아의 ‘노브의 루스키(новЫй русский)’처럼 ‘네프맨(нэпман)’과 같은 부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들 대부분은 상품 및 서비스의 합리적인 조직화의 결과라기보다는 투기, 사기로 부자가 된 경우가 많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전의 전시공산주의처럼 신경제정책에 대한 복잡한 논쟁을 불러왔다. 거시와 미시수준의 경제정책의 조직과 생산관리는 다양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1920년대에는 특히 신경제정책 시기에는 계획과 자연발생적 관리 방법이 혼합되었다. 그러나 20년대 후반에 후자는 확고히 전자에 의해 배제되거나 교체되었다. 생산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순환, 또는 마케팅 행위 영역으로서 시장¹⁷⁾은 제한적으로만 활용되었다.

IV. 산업화와 집단화로의 관리체계 변화

유럽에서는 산업화가 경공업에서 출발했다. 여기서 자본은 매우 빠르게 순환됨으로써 이익은 증대되어 갔다. 점차 은행의 도움으로 자본이 축적되고 집중되면서 산업은 중공업으로 이동한다. 게다가 몇몇 공업화된 국가는 식민지배로 산업화의 주요한 원천을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소련의 산업화는 자본도 착취할 식민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중공업에서 출발하여 시간적으로는 압축적인 산업화를 진행시켰다. 소비에트 산업화의 기본적인 과제는 소비에트 전 경제의 재구축 기초로서 거대한 기계 산업의 형성, 집단화 과정에서 형성된 농업 기관을 위한 기계적 기반의 발전, 자본주의 환경으로 부터 기술-경제적 독립 및 방어력 확보, 기업부터 전 국민 경제에 이르기까지 관리체계의 완성이었다(*Директивы КПСС и Совет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1957, 120—126).

산업화를 위한 특수기관이 설립되었다. 그래서 1932년에 국민경제최고회의에 중공업 인민위원부(наркомат)와 특수 인민위원부(경공업, 산림과 임업산업)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공화국 및 지

17) 소비에트 체계의 경제 관리에서 사용되는 시장의 개념은 이중적이다. 첫째, 상업과 상품 교환의 장소로, 노동 분화와 공업이 발전됨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적 생산 순환의 영역으로 시장이 이해되었다. 둘째, 시장의 개념은 자연발생성(стихийность)을 의미한다. 한편 경제적 과정은 항상 모든 곳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소련에서 계획경제가 형성된 후 시장은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했다.

방단위 연합 및 트러스트는 당연히 이전처럼 공화국과 지방 기관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게 되었다. 공업의 재정은 공업은행(Промбанк), 농업의 재정은 농업은행(Сельхозбанк), 건설은 전러조합은행(Всекобанк), 공영사업(전기, 가스 등) 및 주택사업은 공영은행(коммунальный банк)이 담당했다.

관리의 완성을 위해서 공산당 중앙위원회(ЦК ВКП(б))의 ‘공업관리 재조직에 대한(О реорганизации управлени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ю)’ 결정이 있었다(Самсонов Л.А. 1991, 3). 여기서 공업 관리의 주요 고리로 기업이 인정되었다. 인민위원회에 의한 관리의 유지, 공장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부적절했다고 평가되고, 대신에 독립채산제 연합(트러스트, 신디케이트)의 결성이 제안되었다.

협동조합은 당시 세계적으로 특히 농업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발전하고 있었다.¹⁸⁾ 러시아에서 2,500만 명 개별 농민들의 연합은 구체적이고 중요한 과제였다. 레닌의 협동조합 계획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았다. 농민에 의한 자발적인 협동조합 결성 → 협동조합 가입에 대한 농민들의 물질적인 관심 유도 → 국가로부터 재정적인, 물질적인, 조직적인 지원 → 단순한 협동조합에서 보다 복잡한 형태의 조합으로의 점진적인 이행이다. 신경제정책 시기에 이 원칙은 기본적으로 준수되었다. 이렇게 농촌에서 자발적으로 토지공동경작조합(товарищество совместной обработки земли(ТОЗ))이 결성되었고, 비교적 광범위한 형태는 공급협동조합(소비자 신용조합, 소비자 조합 등)이었다.

1920년대 후반 점차 국가적인 협동조합 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이론적인 배경은 1929년 12월 ‘농업전문가-마르크시스트’ 대회에서 발표한 스탈린의 “소련의 농업문제에 대하여(К вопросам аграрной политики в СССР)”라는 연설이다. 스탈린은 안정적인 소농민 농업이론을 비난하면서 차이노프(А.В. Чапанов)의 지지자들을 비난하였다(Сталин И.В. 1953, 113). 즉각 콘트라티예프(Н.Д. Кондратьев), 마카로프(Н.П. Макаров), 차이노프, 첼린체바(А.Н. Челинцева)와 같은 저명한 학자들은 부르주아 경제학자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지적된 경제학자 중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여러 논문에서 대단위 농업생산의 장점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개별 농업경영의 협동조합화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으로 제시했다. 단순한 협동조합에서 보다 복잡한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레닌의 제안에 상응하는 것이었다. 레닌은 이 문제를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간주했다. 그러나 집단화는 스탈린 협동농장화 원칙에 기초하여 강제적이고 지령적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의 ‘집단화 속도와 콜호스 건설의 국가지원방안에 대하여(О темпе коллективизации и мерах помощи государству колхозному строительству)’에 따라 매우 짧은 시간에 진행되었다. 부분적으로 중앙위원회는 트랙터와 그 외 전문 기계의 부족을 이유로 집단화 운동의 전개를 방해하는 모든 시도들과 단호히 투쟁할 것을 강조했다. 노동의 가장 원시적인 무기로 대농업경영의 형성은 노동생산의 효율성 하락을 초래했지만 이런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¹⁹⁾

18) 당시 미국의 경우 다양한 협동조합에 가입한 회원은 약 6천만 명에 달했다. 거기서 노동조합 생산품이 총 생산의 약 1/3에 달했다. 500개의 거대 생산 연합에 15개 협동조합이 있었다(Самсонов Л.А. 1991, 3).

19) 집단화 과정에서 콜호스(колхоз)와 소프호즈(совхоз)가 형성되었다. 소프호즈는 소비에트 국가 농업 회사로서 국가로부터 임명된 감독자로부터 통제를 받게 되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자와 사무요원이다. 소프호즈의 관리는 국영 공업회사의 원칙과 같았다. 모든 생산 수단과 생산품은 국가에 소속되며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레닌과 스탈린은 공업발전과 군사력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인식했다. 제국주의 열강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띠고 있는 고립적 상황이 급박성을 더했다. 내전과 간섭전이 진행될 동안 이런 상황은 소비에트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강화시켰다. 하지만 국가안보 비중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군사력 비중이 커지고, 중공업 위주의 공업화가 진행되게 되었다. 농업적 유산에서 공업화 도상의 소비에트 정권은 소비재, 농민을 희생하면서 중공업에 투자의 강조점을 둘 수밖에 없게 된다. 산업화, 집단화 과정에서 진행된 성급하고 강제적인 방법은 국가에 엄청난 물질적인, 정신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다. 소련에서의 지령적, 통제적 관리가 제도화되면서 경제 전 부분에서 자율적인 요소나 민주적 요소는 배제되었다.

V. 국가 관리에 대한 논쟁

어떻게 의지적으로 사회경제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자본축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누가 희생을 치를 것인가? 이것이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그 계획은 어떤 것이며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시행되어야 할 것인가?

우선 네프의 성격에 대한 논쟁이다. 레닌 스스로 네프와 집단주의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는 일련의 해석을 남겼다. 레닌은 네프를 일정 수준의 '후퇴'로 해석하기도 하고, 다른 시기에서는 네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부인했다. 전시공산주의에 대한 실수와 맹렬한 국유화, 과도한 중앙집권화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부하린은 네프가 오래전부터 진지하게 검토되고 의도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농민문제에서 볼셰비키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필요한 잉여농산물이 부농에서 나오고, 이들을 적대시 하면 농민반란, 몰수라는 암흑의 시대가 올 것으로 간주했다. 그는 사회주의 건설에는 찬성하지만 농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속도에 한에서 실시하고자 했다.

좌파 반대파는 부하린의 정책에 도전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특정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뿐만 아니라 분과투쟁의 논리에도 크게 영향을 받았다.²⁰⁾ 반대파 주장은 프레오브라젠스키 그룹에서 제기되었다. 이 그룹은 네프를 많은 유보조건을 달고 받아들였다. 그는 1921-24년에 결정된 경로로 장기간 지속될 경우 체제가 떠안을 위협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본원적 자본주의 축적에 대해서 영국 모델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다. 서구에서 자본축적은 농민을 수탈하고 식민지를 착취하여 이루어졌고, 이렇게 형성된 자본이 공업발전에 투자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분석을 소련에 적용하면서 착취할 식민지도 없고, 농민들을 수탈할 수도 없지만 필수적인 사회

국가는 그들에게 봉급과 다른 사회적 생활 수단을 보장했다. 소포호즈의 손실은 국가 재정으로 보충되었다. 반면에 콜호즈는 집단 농업 회사로서 관리의 최고기관은 집단농장원 총회이고, 총회는 그 대표자와 감사위원회를 선출하게 된다. 모든 생산수단과 생산물은 집단농장원의 전체소유이다. 결과와 관련하여 국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20) 20년대 중반에 스탈린과 부하린이 일시적으로 제휴하였고, 지노비예프와 카메네프는 1923년 좌익 반대파에 맞선 투쟁에서 스탈린, 부하린 양자를 지지하였다. 1925년에 지노비예프와 카메네프는 트로츠키 그룹에 합류하였다. 이런 경향은 당시 정책이나 논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분과적 측면을 반영한다.

적 축적은 어디에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공업화의 재원마련을 위해서 뿐 아니라 사적 부문을 희생하여 사회주의 경제부문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필수적인 재원은 사적 부문에서 획득되어야 하며 재원은 과세를 통해, 무엇보다도 불평등한 교환을 통해 사적 부문을 착취함으로써 획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하린 측은 노동자와 농민의 동맹을 위협하는 것으로 비판하였다.

트로츠키와 프레오브라젠스키 그룹에서는 소비에트 공식 노선이 부농(Кулак)에게 너무 유리하고, 당의 공업화 프로그램이 너무 신중하다고 비판했다. 1913년 수준을 뛰어넘는 공업을 건설하려면 대대적인 정책을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스탈린과 부하린은 이에 대해 모험주의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이라 비난했지만 몇 년 뒤 스탈린 자신이 무자비하게 공업화 속도전을 추진하게 된다.

정치투쟁이 진행되면서 공업, 농업 정책에 있어서 혼선이 발생한다. 1927년 공업화 계획 결의안은 부하린의 지지자였던 리코프(А.И. Рыков)가 도입한 것이며, 트로츠키 또한 농민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트로츠키는 시장 없는 사회주의 도래를 믿으면서 과도기 동안 ‘시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1929년 스탈린은 ‘좌익’으로 선화하면서 네프를 파괴하게 되었다.

개발전략과 관련한 논의는 ‘발생론적’ 원리와 ‘목적론적’ 원리가 충돌한다. 전자는 기존 상황, 곧 시장에 강조점을 둔다면 후자는 환경에 순응하기 보다는 경제의 크기를 바꾸고 성장을 극대화하는 개발전략을 강조하게 된다. 이 두 논리는 20년대 후반에 이론적, 정치적 수준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멘세비키였던 그로만(В.Г. Громан)은 농업과 공업간 어떤 불변적인 ‘자연적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하린은 균형을 신중히 고려하는 쪽을 지지했다. 기존 상황을 무시한 어떤 계획도 실패할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1926년 강조점이 급속한 공업화, 중공업 우선정책으로 선화하면서 목적론적 논리로 전략이 형성되었다. 1927년 6월 인민위원회 포고령에서 소련의 공업화를 위해 그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할 통일된 전 연방적 계획 수립을 요구하면서 고스플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²¹⁾

20년대 초 격렬히 논의된 주제 중 하나는 사회주의적 생산에서 조절자의 실제적 존재 필요성이다. 자본주의에서 그 조절자는 가치의 법칙(закон стоимости)으로 이익이 많은 곳에 자본이 몰리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주의에서는 무엇이 그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 대한 의견은 다양한데 크게 2가지로 대별된다.

그들 중 한쪽인 프레오브라젠스키는 소비에트 경제에는 2개의 조절자(가치, 원시적 축적)가 있다고 확신한다. 그는 사회주의 요소와 자본주의 요소에서 벌어지는 이런 갈등을 강조하면서 ‘가치법칙’과 ‘원시적 축적 법칙’의 원리 사이에, 곧 시장과 사회주의 부문을 확대하려는 사회주의 국가의 힘에 대해 주장했다. 이 논리에 의하면 국가의 생산은 자연적 또는 기획된 원칙 즉 2개가 결합된 조절자에 의해 운영된다. 또 다른 쪽 신봉자는 소비에트 경제 조절자는 가치체계를 밟고 있다. 사회주의에서 이 법칙은 균형 노동의 비용 법칙으로 변형된다. 이 개념은 경제학자이

21) 공업투자 확대는 이미 1926-7년 동안 총 투자량이 31.7% 증가하였고, 신규 건설 투자는 2배 이상 증가했다(Экономическая Жизнь СССР, 188; Alec Nove 1998, 162-163).

면서 철학자인 보그다노프²²⁾가 물리학의 에너지 비용 법칙의 논리로 형성하였다. 조절자에 대해서 보그다노프는 프레아브라젠스키와 그 지지자보다는 다르게 제한적으로 인식했다. 그의 논리에 의하면 모든 인간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조직화되거나 탈 조직화된다. 혁명과정에서 보그다노프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학문으로서 그리고 통합과학(meta science)으로서 '텍탈로기야(Тектология: tektology)'²³⁾라는 학문을 고안하게 된다. 자연과 노동, 사상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논의는 가능한 결합의 실제적인 습득에 집중된다. 텍탈로기야는 실제적인 적용을 미리 예상하고, 그것에 필요한 실험, 경험에 의한 검증을 제시하였다.

이시기 논쟁에서 학문으로서 정치경제학의 필요성이 부정되었다. 20년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정치경제학은 오로지 생산의 자본주의적 수단을 배운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사회주의와 관련해서는 생산관계는 명확하고 투명하다. 상품의 생산, 분배와 통제의 원칙은 모두에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론적 연구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프레아브라젠스키의 시각이 특징적이다. 그는 정치 경제학이 사회적 테크놀로지에 자리를 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다 적극적인 지지자는 부하린(Н. Бухарин) 이다. 그는 '불로소득자의 정치경제학'에서 학문으로서 정치경제학은 예외적으로 상품-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전환기 경제에서 이 시각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자본주의-상품 사회의 종말은 정치경제학의 종말이라고 단정 짓고 있다.

보그다노프와 스크보르초프-스테파노프(Скворцов-Степанов)는 결정적으로 사회주의 정치경제학 부정에 반대했다(А.А. Богданов, И.И. Скворцов-Степанов 1918). 여기서 정치경제학이 교환 사회만의 이론인 것처럼, 상품-자본주의의 사회 법칙에 대한 학문인 것처럼 간주하는 자들을 비판하였다. 보그다노프와 스크보르초프에 따르면 정치 경제학은 자본주의 시대에만 한 정되지 않는 역사적 학문으로서 역사적 사실을 연구하고 발전의 부분적인 시기의 특별한 법칙을

22) 보그다노프는 1905년 혁명봉기에서 소비에트의 지도자로서, 볼셰비키 좌익 지도자로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결국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이론과 실천에서 볼셰비키와 대립하면서 볼셰비키와 결별하였다. 그는 볼셰비키식 공산주의의 봉기는 기술관료 계급의 통제나 또는 정체를 불러 올 전시공산주의로 귀결될 것이라고 예상했었기에 1917년 혁명에 참가하지 않았다. 그의 경험일원론(эмпириомонизм), 유물론(материализм), 실천철학(праксиология), 텍탈로기야, 프롤레트쿨트(пролеткульт)운동, 수혈실험 등은 모두 일관된 한 가지 논리 즉 '조직'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보그다노프는 경험일원론, 유물론, 실천철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여 텍탈로기야를 제시하였다. 이런 텍탈로기야의 실천적 응용으로 사회주의 혁명, 프롤레타리아 문화 운동, 수혈실험을 기획하게 되었다. 텍탈로기야의 논리에 의하면 혁명과 같은 사회적 과정이나 수혈과 같은 생물적 과정은 동일한 맥락으로 간주되고 있다. 즉 텍탈로기야의 논리를 생물적 과정에의 적용하여 그는 신체에서 위험한 병을 제거하고 건강한 삶을 지속시키는 방법으로 외부의 건강한 피를 주입하고자 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과정에 피의 교환을 통한 새로운 인간관계의 형태(집단주의)를 형성하고자 했다. 그의 이런 논리에 대한 확신은 러시아 혁명 및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성공, 집단주의 운동과 같은 당시 시대적 상황과 텍탈로기야의 이론에 근거하게 된다. 보그다노프의 경험일원론, 유물론, 실천철학을 텍탈로기야의 사상적 기초로 볼 수 있다(권세은 2006b, 232-233; Богданов А. А. 2003; 1899, 1906; 1914).

23) 보그다노프는 이를 그리스어 'teklon(builder)'에서 따서 '텍탈로기야'라 불렀는데, 이것을 번역하자면 '구조의 과학', '조직의 과학', '조직형태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조직학문으로서 텍탈로기야는 오늘날 일반시스템이론이나 사이버네틱스이론의 많은 사상들에 앞서서 등장했다.

연구하며, 몇몇 보편적인 경제 법칙 해석을 시도하게 된다.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인정하는 측에 반대하는 주요 인사들은 부하린, 프레이브라젠스키, 드보이라츠키(Ш. Двой лацкий), 오스니츠키(В. Осницкий), 크리츠만(Л. Крицман) 등이었다.

정치경제학의 종말에 대한 주장에 마침표를 찍은 계기가 1929년 출간된 레닌전집 XI권이었다. 거기에 부하린의 책에 대한 레닌의 의견이 출간되었다. 1920년에 발표된 부하린의 책 '이행기의 경제(Экономика переходного периода)'에서 레닌은 자본주의-상품 사회의 종말은 정치 경제학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며 정치 경제학은 상품경제만 다루게 될 것이라는 부하린의 주장에 반대했다(*Большевик* 1931, 1932). 여기서 레닌은 정치경제학은 계속 존재할 것이며 완전한 공산주의에서도 존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1930년대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사회주의의 정치경제학을 본질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인구의 대다수가 농민인 러시아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농민을 변모시키고, 러시아 공업화 진행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는 분과, 레닌의 후계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현안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논의되었다. 사회주의 혁명 후 국가 관리에 대한 총체적 논의가 초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점차 이 논쟁들은 학문적, 정책적 수준을 넘어 정치 투쟁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VI. 관리와 자기조직화의 상관관계

고스플란(국가계획위원회)은 단일한 일반 국가경제계획과 그것을 수행하는 방식과 수단을 고안하기 위해서 1921년 설립되었다. 고스플란은 인민위원회의, 국민경제최고회의 등이 내 놓은 모든 계획과 생산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조정기능을 지니고 있었다.

1923-26년에 '계획'이라는 개념은 이후에 갖게 되는 개념과 매우 다르다. 완벽하게 짜인 생산과 분배 프로그램, 곧 '명령경제'라는 것은 없었다.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멘세비키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국가 발전 계획의 기초를 마련하고 '통제수치'를 준비하였다. 이 통제수치는 우선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근거로서 전략적인 투자를 위한 지침이었다. 대부분 트러스트들은 스스로 준비하였고 단지 위로부터 부분적인 감독을 받았다.²⁴⁾ 네프시기 임금은 화폐로 지불되고, 무료 배급 및 무료 서비스는 종말을 고하면서 가격통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1921년 8월 포고령으로 재무인민위원회 부속으로 가격위원회가 설치되어 도소매가격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지만 이 통제는 대체로 무시되었다. 이어 노동·국방회의(СТО) 부속 상업위원회에서는 국영공업과 소비자협동조합을 직접 연결시킴으로서 사적 중개인을 차단하려 했지만 가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

24) 국민경제최고회의의 의장이자 체카 우두머리인 제르진스키(Ф.Э. Дзержински)는 1924년 트러스트들이 고스플란, 글라브메탈(국민경제회의의 금속부분)의 부분으로 행동하면서 등 뒤에서 지방기관의 지원을 받는다고 트러스트에 대해 불만을 토했음 정도였다(Alec Nove 1998, 114).

관리는 보존과 안정을 보장하는 시스템의 적응 메커니즘이다. 한편 시스템의 정돈(упорядоченность)과 안정은 어떤 관리의 작용 없이도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질서를 형성하는 유일한 항상성 기제로 간주하면 안 된다. 자연에서처럼 사회시스템에서 자연발생적인 안정화 메커니즘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작동(조직의 재생, 시장의 기능)한다. 따라서 자연적인 항상성 유지와 관리 메커니즘 간의 구별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은 사이버네틱스와 협동학(Синергетика)²⁵⁾과의 관계이다. 이들 각각 자신들의 메커니즘을 갖는다. 여기서 양측의 상호관계를 보자. 그 중 한쪽은 관리자 즉 결정을 내리고 집행하는 자에게 관리를 모든 주체-객체 상호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자기조직화는 자연스런 조정체계이다. 여기서 자연적이라는 것은 주체-주체 간 또는 객체-객체 간, 구성 요소 간 관계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Там же, 181).

사회의 자기조직화 메커니즘은 시장 관계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상품교환, 시민사회에서 자라난 정치연합의 형성과 상호작용, 사람들의 자유로운 교류 형태와 같은 과정에서 작동된다. 이렇게 모든 사회조직은 적응과 성장의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총체로서 두 메커니즘, 즉 자기조직화와 관리를 포함하는 체계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조직은 스스로 관리 받는 자기조직화 체계인 것이다. 관리와 자기조직화의 상관관계에서 조직의 성장과 해체가 결정된다. 조직의 극단적인 관리화는 자기조직화 경향을 파괴하여 조직을 죽게 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조직의 극단적인 자기조직화 경향은 조직을 무질서로 이끌 수 있다.

인간은 진화적으로 형성되는 조직이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인간 스스로도 다양해 졌다. 진화될수록 보다 강하게 강제를 느끼게 되고, 그 본질을 변형시키고 개인성을 파괴하는 외부적 힘으로서 국가의 강제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회적 조절 영역을 획득하는 능력을 얻게 되고, 그 영역을 사회의 자기조직화 영역으로 이동시키게 된다.

시스템 논의에서 핵심적 요소는 안정성과 발전의 상관관계이다.²⁶⁾ 시스템에서 균형관계가 예외적인 상황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불균형 상태가 보편적이고 성장의 조건이 된다. 시스템의 붕괴는 새로운 질적 상태로의 전환에 실패한 형태이다. 구체적인 실제에서 볼 수 있듯이 균형은 드문 현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안정성과 발전의 상호 모순은 관리의 관점에서 보통 해결된다.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으면서 견실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질적인 변화 능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진정한 대책은 무엇인가?

발전 메커니즘은 관리 메커니즘의 이해와는 다르다. 시스템의 발전은 전체로서 시스템의 안정성과 그 하부 시스템의 불안정성의 통일이다. 하부 시스템의 안정성 해체는 발전의 조건이 된다.

25) 협동학은 '자기조직화에 대한 이론(теория самоорганизации)'이다. 자기조직화란 질서의 자연발생적 창발을 의미한다. 자기조직화의 핵심적인 논리는 다음 세 가지이다. 외적으로 시스템은 평행상태와 거리가 먼 체계의 상태이며 열린 시스템이다. 시스템 내적으로는 비선형적인 상호연결성으로 인해, 양의 피드백 루프를 통한 증폭과정이 전개된다. 다음은 시스템의 새로운 행동양식과 구조는 자연발생적으로 창발된다는 논리이다(권세은 2006b, 152).

26) 시스템의 발전에서 자기조직화 메커니즘 역할의 절대화는 개방성 문제의 이해에서 대두된다. 발전은 개방된 시스템에서 발생된다(Р.Ф. Абдеев 1994, С.40). 완전히 폐쇄되고 완전히 개방된 시스템은 없다. 어떤 시스템이 개방되기 전에 우선 시스템이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환경과 구분되는 경계를 확보하는 것 폐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전은 새로운 질적 상태로의 전환을 통해 전체의 자기실현으로 이해된다. 원인은 발전의 궤적에 적응하는 새로운 정리 정돈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자기조직화 메커니즘의 작용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관리를 항상성 기계로 부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관리 메커니즘의 기능적 형태는 안정화 역할하고, 관리는 기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형성된다. 하지만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관리에 의지하려는 시도는 현실을 스스로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려는 내적 원칙에 모순되게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자기조직화 영역으로 관리의 확대는 균형을 파괴하고 전체를 붕괴시키게 된다.

실제세계에서 관리 메커니즘은 안정화 수단, 자기조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질서의 보존 수단으로서 등장한다. 일단의 공동의 목표(정치적, 경제적, 아니면 다른 목적이든)의 달성을 위해 모인 사람들은 당연히 지도자를 선출하고 상호관계 규칙 즉 필요한 관리 요소의 형성에 동의한다. 카오스, 불안정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질서는 이런 합의 즉 관리의 역할로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자기조직화와 관리의 통합이 안정화와 발전 가능성을 보장하게 된다. 자기조직화 결과로 발생한 질서에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는 설계된다. 이 관리는 새로운 질서를 지원하고, 새로운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자기조직화 결과로 형성되는 사회 유기체 보호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Там же, 192-193).

시스템 관리에서 정기적으로 관리의 주체와 피 관리의 객체의 다양성 관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이런 문제는 관리가 확대되면서 자기조직화 영역에서 발생되거나 시스템 자체에서 또는 피 관리 객체에서의 다양성 증대에 기인한다. 여기서 과거의 관리 방법은 비효율적이게 되고 다양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얻은 시스템은 살아남게 된다. 인류의 역사는 사회적 객체의 관리에서 일련의 혁명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의 변경이다. 이런 측면에서 재정러시아의 붕괴와 일련의 혁명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모든 다양성의 파괴로부터 균형성을 회복하는 수단은 두 가지 상호 모순적인 그룹으로 나뉜다. 관리 주체의 다양성의 수준을 증대시키거나 관리 객체의 다양성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주체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관리 기능의 확장으로, 관리 구조의 복잡화, 관리자의 숫자 증가가 한 가지 길이이다. 새로운 관리 문제는 관리 주체가 증대되는 내부 문제의 부담으로 붕괴되기 전까지 새로운 관리집단으로 선발함으로써 새로운 부서, 위원회 등의 형성으로 반응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에트 권력의 주요 위협으로서 관료주의화에 대해서 볼셰비키들은 네프시기에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소유형태와 교환의 자유는 경제적 영역에서 다양성의 수준을 급격히 높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관리 주체의 대응은 주로 관리자 수의 증가로, 소유의 다양성 고양으로 나타났다(Там же, 194). 주체의 다양성 수준의 증대에 대한 두 번째 길은 사회체계에서 실현시키기 어려운 것이다. 그것은 관리의 분산이다. 관리의 분산이 권력과 물질적인 자원의 재분배를 수반할 경우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것의 실현화 문제가 대두된다. 이런 문제가 국가 관리에서 발생할 경우 그 모든 결정은 격렬한 정치 투쟁을 수반하게 되고, 이는 혁명적인 방법 또는 격렬한 사회적 격변을 겪는다. 이런 예는 20세기 초나 오늘날 러시아의 수평적 분배, 중앙과 지방간 수직적 권력 분배에서 나타나고 있다.

관리 객체의 다양성 수준의 하락은 두 가지 길로 형성된다. 피 관리자들에게 심각한 제한을 설정

하는 경우이다. 사회문제에 적용될 때 이는 소유 형태 그리고 교환체계, 정치적 형태, 이데올로기 등에 제한이다. 다른 말로하면 이런 경우 권력은 관리의 동원 형태에 의거하게 된다. 사회에 대한 제한 조치 정도는 권력과 관리의 전체성의 척도가 된다. 피 관리 객체의 다양성 수준의 하향의 두 번째 길은 피 관리 영역의 감소로 이어진다. 관리 주체에게 이런 길은 보다 복잡하다. 그 실현화는 관리에 필요한 명령 이전에 형성되는 자원의 상당 부분은 사회적 객체에서 결코 추출할 수 없게 된다. 이것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는 최소한 두 가지 어려운 난간, 물질적 측면(이익의 희생) 그리고 이념적(원칙의 희생) 측면의 난간을 해결해야 한다(Там же, 195)

관리에서는 항상 두 측면 - 관리 주체와 피관리 객체가 있다. 객체에 대한 주체의 강제적이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항상 피드백 작용에 반응하게 되어있다. 부분적으로 피드백은 권력의 가능성에 경계를 설정하게 된다. 사회적 시스템에서 권력의 경계는 피관리자의 관계에 의해서 제한된다. 여기서 관리는 피관리자가 권력의 확장에 대한 주체의 요구가 공정하다고 인정할 때 효과적이다. 정치에서 이런 인정의 단위가 정당성이다. 각각의 자기조직화 영역에서 관리의 확장은 주체의 요구와 객체의 기대간 일정한 합의의 결과이다. 여기서 한번으로 영원히 결정되는 최적의 상호관계는 존재할 수 없다. 관리의 동원 성격은 사회적 객체가 그것이 정당하다고 간주할 때 인정된다.²⁷⁾

사회조직에서 위협의 인식은 동원의 근본적인 요소가 된다. 군대에서 뿐 아니라 노동현장에서도 이런 경향을 찾을 수 있다. 만약에 노동자들이 다양성 추구의 결과가 예를 들면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게 한다고 느낀다면 그들은 엄격한 훈육 준수의 필요성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노동에 대한 부적절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보다 중요한 것에 행동의 동기를 찾게 된다는 점이다(Там же, 191). 이렇듯 국가정책에 대한 호응도는 정책 자체 뿐 아니라 사회의 위협을 인식하는 정도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시스템의 보존과 발전은 관리의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된다. 시스템의 보존에 기여하는 관리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발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보통 긍정적인 변화, 진보와 관련시키게 된다.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이행의 결과가 더 좋으며 나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면서 관리는 발전을 추동하고 퇴보를 막는 메커니즘으로 이해하게 된다. 무엇의 발전 또는 퇴보에 관한 관리 메커니즘은 전체로서 시스템에 대한 문제이다.

어떤 것이 발전과 쇠퇴를 구분하게 할까?²⁸⁾ 왜 정해진 순간까지 시스템(인간, 사회 포함)이

27) 군대의 경우 사회에서 당연한 휴머니즘과 민주주의가 인정될 수 없다. 상황이 전체주의적 체제이다. 명령은 논의 대상이 아니고, 같은 시간에 같은 메뉴, 단일 소유로 어떤 언론의 자유도 허용되지 않는다. 객체의 다양성은 최소 수준이고 주체의 다양성은 효과적인 관리 가능성을 위해 최소수준이 된다. 전쟁은 완전한 정당성으로 이런 제한이 인정된다. 하지만 평화시에는 이런 동원의 정당성이 상실된다.

28) 발전과 퇴보는 무엇인가? 세계관 측면에서 접근해 보자. 어떤 이에게는 아름다움과 조화의 구현이고, 어떤 이에게는 기술적인 진보이다. 어떤 이에게는 창조자의 의지에 접근하는 것이다. 현대 학문에서는 발전을 엔트로피의 감소, 정보량의 증대, 복잡성과 조직성의 증가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에 대한 접근은 일정 정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기술적인 진보는 먼 미래의 결과를 고려하면 한 가지 의미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환경문제를 보면 명확해진다. 게다가 엔트로피는 감소할 수 있고 복잡성과 조직성은 발전과 관계없이도 인위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

형성되고, 발전하다가 결국 쇠퇴하고 사라지게 되는가? 어떤 순간부터 시스템이 없어진다고 간주하는가? 무엇이 시스템의 본질인지는 몇몇 주요 요소와 관련된다. 시스템 형성은 그것을 형성하는 충분한 범위에서 본질이 현재화된 이후이다. 모든 구체적인 시스템의 성장은 잠재적인 본질의 현실화이며 발전은 무에서 유로의 시스템의 운동이다. 구체적 시스템에서 이해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사회적 객체의 관리에서 종종 개념이 대체되기도 한다. 따라서 관리자, 관리 메커니즘이 시스템의 발전을 초래하는지 모든 경우가 쉽게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복잡성, 정돈, 정보의 축적과 엔트로피 감소는 발전과 관계된다. 그러나 그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다. 극단적인 정리(단순화)는 쇠퇴를 수반하게 될 수도 있다. 소련의 붕괴가 그 사례이다. 모든 과정의 단순화, 규율화로의 이행은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자기조직화 논리를 강조하는 협동학 논의에서는 그 내부적인 관리 메커니즘으로 시스템의 성장 가능성을 주장하는 논리 즉 사이버네틱스 접근법을 부정한다. 부분적으로 이는 관리 가능성의 절대화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다(Там же, 182).

소비에트 국가 관리에 관한 논쟁의 핵심은 관리와 자기조직화의 상관관계로 귀결된다. 소비에트 관리의 형성 시기와 전시공산주의시기에 시스템은 극도의 불균형 상태에 놓이게 되고,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관리 메커니즘이 주로 작동되었다. 이 관리 메커니즘은 사이버네틱스 논리에 서처럼 시스템을 정돈하는 메커니즘, 항상성 기계(гомеостатическая машина)로 이해되었다. 이후 신경제정책 시기에서 관리 주체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와 사회적 객체의 자기조직화 경향이 충돌하면서 관리와 자기조직화 간 경향이 충돌하였다. 이어 산업화, 집단화 과정에서는 ‘관리’라는 용어는 ‘사회의 과학적인 관리로 보장되는 인민의 복지 증진으로 이해되는 발전 및 성장’으로 해석되면서 자기조직화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VII. 결론

표트르와 스탈린이 그렇듯이 ‘개혁’, ‘관리’의 유혹은 러시아 근대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런 유혹을 오늘날 여전히 많은 조직의 지도자들이 느끼고 있다. 러시아에서 근대화 개혁은 통제와 국가의 전능한 사회동원과 종종 결합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소련의 일련의 정책은 인류의 산업화 과정에서 사용되었던 모든 방법 즉 토지로부터 농민 몰아내기, 노예 노동체제의 도입, 집단화, 강제 노동수용소 등을 통해 재현되었다. 서구에서 수백 년간 걸쳐 이루어졌던 것을 단 20년 만에 이루려 했다는 측면에서 그 효율성을 평가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과정이 압축되어 진행되면서 엄청난 고통과 공포가 수반되었다.

사람은 자신의 이성에 기대어 의식적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자신의 행동을 계획하고 상황을 통제하게 된다. 이런 능력은 자연을 지배하고 자연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다. 따라서 모든 불안한 상황에 처하면 인간은 원인을 분석하여 불안의 원인을 개조하거나 제거하게 된다. 이런 것이 관리 메커니즘이다. 한편 많은 경우 인간의 의도적인 개입이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 상황을 자신의 경로로 진행되게 두면 모든 것이 스스로 정리될 수도 있다. 게다가

가 관리의 경우 단기간에 효율적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이었는지 의심스럽다. 소련의 사회주의적 근대화 및 산업화는 단기적 측면에서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라도 극단적인 관리 과정은 사회 시스템의 자기조직화 경향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단기 과정에서 목적인 결과의 성취가 장기 과정에서는 장애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이후 소련은 침체를 겪게 되었다.

시스템이 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거나 적극적으로 환경을 조작할 수 있다는 대전제는 질서정연함 속의 질서(order in the orderliness), 즉 분석 가능한 환경을 상정하는 균형모형의 경우에만 타당한 것이지, 카오스로부터의 질서(order out of chaos), 즉 분석 불가능성을 상정하는 비균형 모형의 경우에는 변화나 갈등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다.

소련의 붕괴의 원인을 다양하게 지적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러시아 내부에서 그 결정적인 원인을 찾아야만 한다. 환경으로부터 체제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기조직화와 보존 및 적응의 내부 메커니즘의 약화가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내외의 호의적이지 않는 요소들의 영향에 대항하는 능력을 상실한 점이 그 원인이다. 시스템을 환경과 관련하여 개방적이거나 폐쇄적으로 볼 수 있다. 모든 시스템은 환경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고 그에 반응하게 된다. 복잡하게 발전하는 시스템은 개방성만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내재하는 자기 적응 메커니즘의 존재에 달려있다. 시스템의 발전에서 개방성은 필요하다. 그러나 공격 환경으로 부터 보존은 폐쇄성으로 보장된다. 결국 관리의 목표는 자기조직화 메커니즘과 상호작용에서 시스템 적응 메커니즘의 기능을 완수하기 위해 경계의 적합한 외부 조건의 형성 및 재생을 보장하고, 시스템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런 조건의 변화를 보장해야 한다.

생존의 한계까지 이끈 20세기 동안 양차대전, 수십 년간 황폐화 게다가 러시아 문화적 특성, 이 모든 것이 소비에트 권력 형태의 관리 메커니즘을 결정지었다. 당시 러시아 상황은 동원적 관리에 기회를 주었다. 시스템의 존재가 위협받을 때 사회적 다양성 수준을 급격히 하락시키는 전체주의가 공산주의 이름이든 민주주의 이름이든 이런 저런 이데올로기 기치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의 붕괴는 상당한 수준에서 시스템을 해체하려는 위협이 사라졌다고 간주할 때 당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다. 자기조직화 영역에서 관리의 확대가 객관적 원인을 갖고 있을지라도 확장은 긍정적인 결과 뿐 아니라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마치 약을 먹은 사람이 건강에 대한 위협을 제거했지만 불가피하게 자기조직화 과정, 자연발생적 과정을 일정 부분 침해하게 된다. 즉 관리의 확장은 자기조직화의 기능적 메커니즘을 파괴할 수 있다. 오랜 기간 동안 관리는 자연적인 과정을 대체하게 되는 부분에 기능의 감퇴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안정화와 성장 부분에서 관리와 자기조직화 메커니즘의 상호관계의 계산이 직접적인 목표 달성과 전반적인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

소련의 '계획', '관리'에 존재하는 특성은 대부분 국가/사회의 전시, 경제위기와 같은 비상시에 관찰된다. 이는 특수한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관료제적 중앙 집중화의 고유한 오류들은 전시경제를 경영하는 불가결한 측면의 한 부분이다. 이 시기 서방에서도 경제가 붕괴되고 대혼란으로 접어들면서 국가에 의한 계획이 집중적으로 논의 되던 시기였다.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초기에, 평형상태로 진입하는 진입로에서 스탈린은

오히려 지령적 관리를 구축하는데 몰두하게 되었다. 선례도 없었던 러시아에서 근대화는 '대도약', '사회주의'의 길로 수행되었다. 하지만 명령경제는 명령-정치 체제를 요구하게 되고 그것은 함께 등장했다가 함께 몰락하게 되었다.

참 고 문 헌

- Cliff, Tony, 정성진 옮김(1993). 『소련국가자본주의』. 서울.
- Nove, Alec, 김남섭 옮김(1998). 『소련경제사』. 서울.
- 권세은(2002). “지역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복잡체계론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제5호).
- 권세은(2006a). “러시아 시스템학의 연구 경향.” 『슬라브연구』(제22권 2호), 2006a.
- 권세은(2006b). “통합과학으로서 보그다노프의 'Тектология'.” 『슬라브학보』(제21권 4호).
- 노경덕(2000). “알렉세이 가스체프와 소비에트 테일리주의, 1920-1929: 이론적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문학석사학위논문.
- Абдеев Р.Ф(1994). *Философия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цивилизации*. М.
- Арнольд В.И(1990). *Теория катастроф*. М., 1990.
- Берхин И.Б(1970). *Экономическая политика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М.
- Бир С.Т. *Кибернетика и управление производством*. М., 1965.
- Богданов А(1899). *Основные элементы исторического взгляда на природу*. СПб.
- Богданов А(1914). *Введение в политическую экономию*. СПб.
- Богданов А(1918). Скворцов-Степанов И.И. *Курс политической экономии*. Т.1. М.
- Богданов А(1989). *Тектология. Всеобщая организационная наука*. Кн. 1 и 2. М.
- Богданов А. *Эмпирионизм*(1906). СПб.
- Большевик*, No. 23—24(1931); No. 1—2(1932).
- Бухарин Н.И(1988). *Избран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М.
- Валовая М.Д(1993). *Маркетинг в рыночной экономике*. М.
-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1963). No.5.
- Гастев А.К(1972). *Как надо работать*. М.
- Горев Б. И(1922). *Вестник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Академии*. No.1.
- Директивы КПСС и Совет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хозяйственным вопросам* (1957). Т.1. М.
- Ленин В. И(1964).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Vol.42. М.

- Ленин В.И(1918). "Очередные задачи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Правда*.
- Мескон М.Х., Альберт М(1993). *Основы менеджмента*. М.
- Мескон М.Х., Альберт М., Хедоури Ф(1992). *Основы менеджмента*:Пер. с англ. М.
- Под знаменем марксизма*(1943). №. 7—8, М.
- Преображенский Е(1922). *Вестник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Академии*. No.1. М.
- Самсонов Л.А(1991). *Творцы кооперации*. М.
- Сталин И.В(1953). *Вопросы ленинизма*, 11-е изд. М.
- Шабров О.Ф(1999). "Управление и самоорганизация как факторы стабильности и развития," *Эффективные технологии в систем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Май коп-Ростов н/Дону.
-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звестия*(1971). М.
- Эшби У.Р(1959). *Введение в кибернетику*. М.

Abstract

1920-30s' debate about the management of the Soviet system

Se Eun Kwon*

This article reviews current academic debates about the management of the Soviet system held in 1920-30s. The nature of the debate that took place immediately after Russian socialist revolution went beyond its time and place. By reviewing the thoughts of Vladimir Lenin, Iosif Stalin, Alexander Borganov, Nikolay Buharin and Alexei Gastev, this article will shed some light on the nature of the debate. In terms of analytic method, I investigate two mechanisms, the management mechanism and self-organizing mechanism, as key factors for th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the system. Any public body can be considered as a system containing two mechanisms - management and self-organization - together form a single mechanism of its adaptation and development.

The core of the debate about the management of Soviet state results in the correlation of self-organization. During the formation period of Soviet state and the period of war, communism had been exhibited as an extreme imbalance of the system. To stabilize the state of the system, the management mechanism was adapted to the system. The management mechanism has been understood primarily as the homeostasis machinery, the mechanism to reduce the level of disorder of the system. When new economy policy was installed, there was a conflict between the subject attempting to extend managing power and the object attempting to extend self-organizational power. After industrialization and collectivization policy had been executed, the term of 'управление' was interpreted as 'scientific control of social system to promote the welfare of the people'. The meaning of this term was acknowledged as the totalitarian nature, denying the self-organizational power of the system. Meanwhile, the controversy about national management was linked with Lenin's successor and to political, factional issues. Thus, the nature of the dispute included the features political struggle, and went far from the academic and political discourse.

■ 논문접수일 : 2009년 9월 20일, 논문심사일 : 2009년 11월 10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1월 20일

*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